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삼성증권

No	구분	질문
1	(사전 질문) 인재상/스펙	현재 타 업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대 중후반에 신입 공채로 입사할 경우 희망하는 기업금융 관련 부서로 배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A		당사의 경우, 직군별로 공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WM, IB기업금융, IB대체투자, Sales&Trading, 리서치, 경영지원 등) 따라서, 기존 업무와 상관없이 기업금융 관련 직군으로 지원하신다면, 기업금융 관련 부서로 배치됩니다.
2		직장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자격증 준비로 다소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스펙 준비보다 NCS 나 GSAT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당사의 채용 전형은 직무적합성 평가 → 직무적성검사(GSAT) → 면접전형 순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직무적합성(서류)와 GSAT을 모두를 합격하여야 최종합격이기에 우선순위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두가지 모두를 준비 병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지방 사립대 출신으로 증권사 PB 신입 공채를 준비한다면, 학력 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경험이나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PB직군을 희망한다면, PB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경험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고객 서비스 관련 경험, 금융직무 관련 경험, 영업과 관련한 경험, 누군가를 설득해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 등) 학벌은 블라인드이기에 학교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PB 직무를 준비하면서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했다면, 이후에는 어떤 자격증이나 역량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A		PB에 국한하면 직무와 밀접히 관련있는 AFPK, CFP 또는 CFA 등의 자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현직자 입장에서 취업 준비생이 입사 전에 꼭 경험하거나 준비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전과 유사한 답변이 될 것 같은 한데, PB직군을 희망한다고 하면, PB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경험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고객 서비스 관련 경험, 금융직무 관련 경험, 영업과 관련한 경험, 누군가를 설득해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 등) 그리고 본인이 이 직무를 왜 가고싶은지, 본인의 어떠한 강점을 이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6		현직자 분께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제 입사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경험이나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또,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낀 준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저는 다양한 대외활동이 가장 많이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제가 희망하는 직무(PB)를 이해할 수 있었고, 직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도움이 되지않았던 준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과정에서 배우는 점은 분명 있으니까요.
7		증권사 신입 채용에서 지원자의 나이나 졸업 시기가 실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편인가요? 특히 다른 업종에서 경력을 쌓은 지원자가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나이가 중요한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A		당사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지 않을 뿐더러 블라인드입니다. 나이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인재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실제 채용 과정에서 '이 지원자는 뽑고 싶다'고 느끼게 되는 지원자들의 공통점이 궁금합니다.
A		저희는 임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아래 "7Principles"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며 강조합니다. 인재상도 이 부분에 녹아있으니 맞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 우리는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도합니다. 3.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며 더 나음을 고민합니다. 4. 우리는 무엇이든지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우리는 권위의식없이 소통하며 서로를 배려합니다. 6. 우리는 안되는 이유 대신 되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7. 우리는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9		금융업 경력은 없지만 약 6년간 타 업종에서 고객 응대 서비스 및 사무직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증권사 지원 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금융권 직무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경험이나 역량도 궁금합니다.
10		대고객 응대, 서비스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영업직군인 PB직군에 해당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금융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유관 자격 등 준비를 통해서 부족한 직무역량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A		IB 직무는 관련 인턴 경험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IB 관련 인턴 경험이 없는 신입 지원자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경험이나 역량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까요?
11		네, 인턴 경험이 없는 지원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도 (직무와 관련된 과목 수강, 다양한 활동 경험(학회 활동 또는 금융공모전 참여, 자격증 등)) 를 보여주신다면, 보완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인턴 경험이 없다는 것을 상세할만한 다른 본인만의 강점을 잘 어필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A		IB 직무를 준비할 때 금융 관련 자격증이나 영어 역량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실제 채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느끼셨던 역량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도 (직무와 관련된 과목 수강, 다양한 활동 경험(학회 활동 또는 금융공모전 참여 등))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정 자격증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다는,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증이라도 있다면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학 역량도 직군별 지원 기준에 맞는 어학 자격 기준(IB직무의 경우, OPic IM등급 이상)만 맞춰주시면 되지만, 직무에 따라서는 영문 서류 등을 작성/검토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가 있어 어학 역량은 분명히 강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삼성증권

No	구분	질문
12	(사전 질문) 자기소개서/서류전형	실제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서 면접관들에게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느낀 경험이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A		직무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경험 및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경험에서 배운 내용을 본인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잘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13		자기소개서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이 지원자는 면접에서 만나보고 싶다’고 느끼게 되는 지원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A		물론 다양한 평가요소가 있겠지만 삼성증권이 강조하는 인재상과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4		면접에서 만나보고 싶은 지원자들의 특징으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느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 직무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면 면접에서 더 물어보고 검증하고 싶어지는게 사람 마음이니깐요.
A		PB 직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경험이나 역량은 무엇인가요?
A		PB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크게 금융지식/영업/대고객 서비스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및 역량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며, 자기소개서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이전에 말씀드린 당사가 선호하는 인재의 특징과 같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임직원 행동원칙인 아래 '7 Principles'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순 정략적인 스펙 나열보다는 아래 항목에 맞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우리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 우리는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도합니다. 3.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며 더 나음을 고민합니다. 4. 우리는 무엇이든지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우리는 권위의식없이 소통하며 서로를 배려합니다. 6. 우리는 안되는 이유 대신 되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7. 우리는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16	(사전 질문) 면접	PB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주로 나오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A		면접질문을 알려드리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PB는 결국 고객의 특성에 맞춰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삼성증권에는 어떤 고객군들이 있을지 미리 고민해보고, 그에 맞춰 다양한 투자전략을 고민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지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답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신입채용은 입사 후 30년 이상을 같이 근무할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추상적인 답변일 수는 있지만, 내가 만약 삼성증권 선배라면 어떤 후배와 같이 일을 하고 싶을지를 고민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하고 쓴 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 준비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18	(사전 질문) 기타	신입으로 입사할 경우 이전 경력이나 군 복무 기간 등이 급여나 호봉 산정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A		3급 신입채용 전형을 통해 입사하시는 분은 모두 동일한 3급 신입사원 처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2년 경력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9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은행이나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현직자 입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장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삼성증권은 WM, 디지털, S&T, IB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통해 주식중개 및 자산관리, 기업금융,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금융투자회사입니다. 종합 금융투자회사인 만큼 타 금융업권 대비 금융 전범위에 걸친 다양한 경험할 수 있고, 특히 당사는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 후에도 본인 니즈에 따라 자신만의 커리어패스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특정 기업 대상 질문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신입 공채를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회사가 기대하는 역할이나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당사는 신입/경력 무관하게 '성장하는 회사, 행복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늘 찾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에게는 기존 조직에 긍정적인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적/기술적인 부분은 입사 후 같이 배워가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IB 직무는 관련 인턴 경험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IB 관련 인턴 경험이 없는 신입 지원자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경험이나 역량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까요?
A		네, 인턴 경험이 없는 지원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인턴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도 (직무와 관련된 과목 수강, 다양한 활동 경험(학회 활동 또는 금융공모전 참여 등)) 를 보여주신다면, 보완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3		삼성증권 IB 직무를 준비할 때 금융 관련 자격증이나 영어 역량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실제 채용이나 업무에서 중요하게 느꼈던 역량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A		IB 직무의 경우, 오펙 1M 이상을 지원 어학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등급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나, 해외 자료를 접할 일이 많은 IB 업무 특성상 어학능력은 높을수록 좋기에 어학공부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증권사 PB 직무에 지원하고 있지만 서류전형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경험은 부족하지만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학점이 낮은 편이라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증권사 PB 신입 채용에서는 학점, 금융 관련 자격증, 직무 경험, 자기소개서 중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직무에 대한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한 내용들을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전공과목 이수내역/직무관련 활동경험/에세이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요소를 가중해서 평가하지는 않으나, 직무와 관련된 요소만 평가하며 직무 무관스펙(학벌/나이 등)은 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삼성증권

No	구분	질문
1	(자유 질문) 직무/부서 상세	금융 업무시스템이 아닌 일반 개발 인프라 보안 등 IT 직무에서도 신입에게 금융 도메인 지식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요구한다면 이를 자격증(예: 투자자산운용사), 프로젝트 등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채용 시 금융 도메인 중심 IT와 일반 IT를 별도로 선발하는지, IT 직군으로 통합 선발 후 배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IT직군 지원자가 금융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IT직군의 경우, 전산계열 전공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IT 직무 전문성에 조금 더 포커싱하여 면접을 보게 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T직군은 통합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2		바이오 대학원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바이오 기술의 실무적 이해와 기업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IB 직무 지원 시 차별화된 강점으로 다양한 바이오 기술을 익히고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어필해도 괜찮을까요?
A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인턴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분석 역량을 어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높은 산업이해도가 요구되는 바이오 특성상 면접 때 꼬리질문 및 추가 검증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홀세일 직무에 있어 강조해야 할 스펙 및 역량이 궁금합니다.
		삼성증권은 '홀세일' 직무를 S&T(세일즈) 직무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		최근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계 기관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 해외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어학역량을 보유하신 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범인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준비해온 것들을 자기소개서에서, 그리고 면접장에서 보여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신입PB는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접에서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A		주로 신입들은 선배 PB분들을 통해 고객을 소개 받거나, 지점에 내방하는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점차 경력이 쌓이고 기존 고객과 신용이 쌓인다면 고객으로부터 지인 고객을 소개받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셔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영업방식을 고민하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PB마다 본인만의 영업스타일은 다르니까요.
5		S&T 부분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신입 공채로 취업하는 비율과 리서치 같은 곳에서 넘어오는 비율, 취업하게 된다면 주로 어떤 부서에 배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삼성증권은 S&T(운용) 직군과 S&T(세일즈) 직군으로 나누어 채용하고 있습니다. 운용 직군의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 거시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수리적 감각이 핵심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듯 하고, 세일즈 직군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세일즈 마인드(?)가 핵심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당사는 신입사원을 공채를 통해서만 채용을 하고 있기에, 당사에 합류하시려면 신입공채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채용 부서의 수행업무를 공고의 직무상세정보에 게시하기 때문에, 공고를 면밀히 확인해주세요.
6		IB 대체투자/PF 직무를 희망 중이며 자격증, 학회, 공모전, 사무보조 알바 등 모두 부동산 및 대체투자에 맞춰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 한 운용사의 일경험에 참여하며 전통자산을 다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본래 대체투자 프로젝트를 희망했었고 처음엔 불합했었으나, 운영사 측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경험해보는 게 어떻냐고 제의를 주셔서 우선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업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자는 취지로 수락하고 참여했었습니다.
		혹시 해당 경험이 저의 대체투자에 대한 진정성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 계속 대체투자 분야(IB PF 포함)를 준비중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가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IB의 희망하는 세부 직군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원하는 부서로 배치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지와 만약 사실이라면 IB의 한가지 부서만을 목표로 한 것처럼 어필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업금융 전반을 준비한 것처럼 어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당사는 기업금융은 IB1, 대체투자금융은 IB2로 나눠 별도 직군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전 커리어와 상관없이 지원한 직무와 유관된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것이니 다른 직무로 배치받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면접위원분들도 모두 현직자이기에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다른 커리어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모두 이해합니다.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금융 업무를 하게된 배경을 면접위원분들께 설명드린다면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7		IT부서에서 신입이 입사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증권의 IT는 타 금융사의 IT와 비슷하지만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당사는 MTS/HTS 등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부서, 주식 매매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부서, 금융상품 매매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부서, 잔고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 등이 있고, 각 부서별로 역할과 필요 역량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서가 주식 매매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매매 경험이 있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잘 적응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삼성증권

No	구분	질문
8	(자유 질문) 인재상/스펙	PB직무 지원 시 어학점수가 1M일 때(조건달성), 서류 평가에 관련해, 어학 부분에서 불리하지 궁금합니다. 어학점수로 소위 말하는 엑셀컷이 있나요?
A		엑셀컷은 없습니다. 어학점수가 기준 이상이라면 그 외 직무 관련 내용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9		다만, 직무 특성상 영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등에서 영어 관련 질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A		PB직무 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 투운사 외 금융자격증 및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자기소개서와 면접만으로 합격 가능할까요?
10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PB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경험이라도 있다면 이를 잘 녹여내어 어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고객 서비스 관련 경험, 금융직무 관련 경험, 영업과 관련한 경험, 누군가를 설득해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 등) 제작년 금융공동채용박람회에서 IB 채용 관련 현직자분께 학사 이상(학점은행제 포함)이면 지원 가능하고, 투운사 CFA Level 1 정도 외 정량적인 요소는 크게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현재도 실제 채용에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A		또한 증권사 ECM/IPO 직접 경력이 없는 경우 신한은행 등 은행의 기업금융·여신 경력(카드사 포함)이나 금융공공기관·기금 경력을 쌓은 후 ECM/IPO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30대 중후반 타 업계 경력적의 나이가 실질적인 제약이 되는지, 증권사 재직 중 개인적으로 대학원(MBA 등)을 병행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제작년과 지원 조건은 동일합니다. 개인의 커리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에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더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타 업계에서 이직을 해오는 분들은 많습니다. 본인이 신한은행 업무에서 배운 역량을 IPO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PB 직무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보험사 지점에서 보험영업 인턴 하는 것이 스펙에 있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12		나이가 많은 편이라, 증권사 인턴/공채만 지원할지, 타 금융권 인턴이라도 일단 경험해 보는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A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PB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경험이라도 있다면 이를 잘 녹여내어 어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고객 서비스 관련 경험, 금융직무 관련 경험, 영업과 관련한 경험, 누군가를 설득해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 등) 말씀하신, 보험사 지점에서 보험 영업과 관련한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 영업직이 아닌 증권사 PB직무에 왜 지원한 것인지 등을 궁금한 것 같습니다!
13		디지털 관련 분야의 경우 (데이터분석 등) 금융 자격증이 없어도 합격이 가능할까요?
A		디지털 자격증 혹은 프로젝트, 인턴 경험은 있으나 금융 자격증의 부재가 우려되며, 인턴 또한 금융업계 인턴이 아니라 걱정스럽습니다.
14		아무래도 증권사사이에 금융 도메인 지식이 있으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15		다만, 자격증으로 합격/불합격이 나뉘지는 없기에 직무에 맞는 본인의 강점인 데이터 전공능력을 적극 어필하고, 걱정하신 금융적인 부분은 솔직하게 면접관 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		아직 서류 및 면접까지 시간이 남았기에 자격증 취득은 힘들더라도 면접에서 답변할 기본적인 수준의 금융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7		증권사 IB, DCM, 리서치 인턴에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uscpa 자격증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베네핏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재무제표를 깊이 있게 다루는 IB와 리서치 직무에서 USCPA의 회계지식이 있으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8		물론, 자격증을 보유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회계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겠고, 해당 내용을 면접위원에게 잘 어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		금융학회 활동을 1년 동안 했지만, (리서치 4회) 정성적으로 얻은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당 활동을 보완해서 자소서에서 작성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		정량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직무 경험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꼭 모든 것을 수치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나이, 상황, 커리어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비 효용가치를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추가적인 학회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라면 더 중요한 인턴이나 자격증 등 다른 경험을 해보고자 노력할 것 같습니다.
21	(자유 질문) 인재상/스펙	S&T 직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트레이딩 직무의 경우, 문/이과, 성별 그리고 졸업 시기 및 나이가 인턴, 자격증, 금융 동아리 등 유관 경험과 직무 이해도 및 관심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S&T(운용) 직무의 경우, 유관 전공이거나, 직무 유관 자격증, 금융 동아리 활동도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졸업시기나 나이는 평가 요소가 아닌 점을 안내드립니다.
22		증권사 마케팅은 어떤 지원자들을 주로 선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권 활동이나 서포터즈 경험이 없는데 최근 증권사 경영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3		이런 경우 어떻게 증권업에의 관심도를 어필해야 설득이 될까요?
24		증권사 마케팅의 기본은 고객 분석입니다. 고객의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우선되어야 타겟팅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하니까요.
25		직접적인 증권사 경험은 없더라도, 분명 살면서 금융과 연관된 경험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녹이고 지금껏 증권과 접점이 없던 내가 어떠한 일을 계기로 증권에 관심을 갖게되었는지를 솔직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		PF 직무를 희망하는데, PF직무 인턴 말고 다른 직무에서 인턴 경험이 있으면 무의미할까요?
27		또 PF직무에서 일하기위해 어느정도의 스펙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8		무의미한 인턴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PF직무에 어떻게 활용할건지 잘 녹이기가 한다면요.
29		정량적인 스펙 커트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량적 스펙이 안 좋더라도 경험을 예세이에 잘 적어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스펙이 좋더라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0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벌/나이 등 주요 사항들은 블라인드이기에 제가 말씀드린 스펙은 자격증/공모전 등을 말씀드린겁니다.
31		IB 직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관인턴 3회, CFA lv1 정도의 스펙을 쌓아왔는데, 금융학회 경험도 필요할까요? 학회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궁금합니다. 공채 기준 학회가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32		학회 경험이 필수라기 보다는, IB직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어느정도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자격증과 인턴경험을 바탕으로 왜 IB직무를 희망하는지를 잘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허가 공채 인력들을 대상으로 학회경험 유무를 별도로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율 데이터는 없는 점 안내드립니다.
33		혹시 백오피스 사무보조의 파견직 같은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경험해보시길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4		직무 유관 경험/인턴이 물론 좋은 합니다만 그러한 자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저허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35		파견직 업무를 하면서도 분명 배우는 점이 있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업무 커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36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한적인 시간을 다른 자격증/직무 공부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파견직을 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유리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삼성증권

No	구분	질문
20		블라인드 전형이면,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당사에서 일한 것 또한 숨겨야 하나요?
A	(자유 질문) 자기소개서/서류전형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성증권 신입채용은 블라인드로 진행됩니다. 출신학교, 나이, 성별, 출신지역의 정보는 평가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경력사항, 자격사항, 여학등급, 이수교과목 세부내용, 에세이만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세이를 성실하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근무회사/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감점은 없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양해주시길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21	(자유 질문) 면접	PB를 준비하며 대형 의류 매장과 백화점 브랜드에서 1대1 고객 응대 경험에서의 제 영업방식을 영업 역량으로 말씀드렸는데, 금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르바이트 경험도 PB 면접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또한 이런 경험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고객 대면 서비스 경험은 PB직무 어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PB는 "금융 역량/지식"을 기반으로 고객서비스를 하는 직군이기에 단순 대고객 서비스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금융 역량도 같이 어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블라인드이면 근무했던 타사의 증권사명과 지정명을 명시하는 것이 위반 사항이 될까요?
A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근무회사/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감점은 없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양해주시길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2	(자유 질문) 특정 기업 대상 질문 (삼성증권)	삼성증권 wm 경우 석사로 지원할 시 포트폴리오 제출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없어 문과는 보통 어떤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포트폴리오가 추후 면접에 사용된다고 적혀있었는데 (작년기준), 연구 논문 주제가 금융과는 무관하여 이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A		석사 이상 학위 졸업자의 경우 '졸업논문명'과 '전공소개서'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직무무관) 전공소개서는 학위 취득시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 연구 경험 등 전공을 소개할 수 있는 자유양식으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분량 제한 없음) 업로드 해주신 전공소개서는 면접위원이 면접 시에 확인 가능하며, 이에 대해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직무와 무관한 전공을 졸업하셨다면, '전공과 연관성이 없음에도 삼성증권 ○○직무에 지원한 동기'를 준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신한투자증권

No	구분	질문
1	인재상/스펙	현재 타 업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대 중후반에 신입 공채로 입사할 경우 희망하는 기업금융 관련 부서로 배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A		기업금융 관련 부서의 경우 많은 지원자들이 인턴십이나 대외활동, 자격증 등을 오랫동안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당사 신입사원들의 평균 입사연령이 20대 중반~30대초반에 분포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신입사원으로서의 입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계신 업무나 근무하고 계신 산업군에서 기업금융 업무와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경력 입사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직장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자격증 준비로 다소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스펙 준비보다 NCS 나 GSAT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당사의 경우 NCS 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대신 AI 역량검사를 통해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라면,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면접 관련된 실전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지방 사립대 출신으로 증권사 PB 신입 공채를 준비한다면, 학력 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경험이나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1)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격사항에 대한 준비 (2) 그리고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업 현장에서 고객을 마주한 경험을 쌓아왔던 경력과 에피소드를 준비해 나가시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금융 관련 영업현장(ex. 은행, 증권사 등)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겠지만, 비금융권 영업현장에 대한 경험도 고객을 응대하는 적극성과 스킬을 키우는 데 있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PB 직무를 준비하면서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했다면, 이후에는 어떤 자격증이나 역량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A		PB 직무의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이외에 업무 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증은 현직자만 취득 가능한 자격증(ex.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사항 준비보다는 다른 역량 강화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유효합니다.
		PB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주식,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된 인턴 등 직무경험을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현직자 입장에서 취업 준비생이 입사 전에 꼭 경험하거나 준비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왜 내가 금융권 취업을 선택했고, 왜 그 중에서도 증권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원자 스스로 어떠한 역량이 더 필요한지 판단하는 속도도 다르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서의 답변 방향과 구성성도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6		현직자 분께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제 입사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경험이나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또,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낀 준비가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A		각 회사마다 진행되는 인턴십이나 대외활동(서포터즈, 아카데미 등)의 경험이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금융업 및 지원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격증에 대한 준비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에, 경험과 역량을 쌓음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증권사 신입 채용에서 지원자의 나이나 졸업 시기가 실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편인가요? 특히 다른 업종에서 경력을 쌓은 지원자가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나이가 중요한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A		지원자의 나이나 졸업시기 그 자체가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졸업이 타 지원자 대비해서 늦거나, 졸업 후의 공백이 길다면 해당 시기에 어떠한 역량을 쌓아왔는지 증명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업종에서 경력을 쌓았더라도 지원하시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무라면 해당 지원자 역시 충분한 역량을 쌓아온 지원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8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인재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실제 채용 과정에서 '이 지원자는 뽑고 싶다'고 느끼게 되는 지원자들의 공통점이 궁금합니다.
A		업에 대한 관심과 준비 정도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권업은 고유의 특성이 있어 지원자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적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지원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한 빠르게 적응하는 자세 및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9		금융업 경력은 없지만 약 6년간 타 업종에서 고객 응대서비스 및 사무직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증권사 지원 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금융권 직무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경험이나 역량도 궁금합니다. 금융업 경력이 아니더라도 고객 응대 경험 및 사무직 업무 경험은 지점영업, 지점업무, 본사관리 등 다양한 직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에 대한 관심과 준비 정도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과 실제 준비를 발맞춰 진행해주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0		IB 직무는 관련 인턴 경험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IB 관련 인턴 경험이 없는 신입 지원자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경험이나 역량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까요?
A		당사의 경우 IB 관련 인턴 경험이 없는 IB 직무 신입사원 합격자도 있습니다! 다만 준비과정에 있어서 타 산업에서의 근무경력, 학회, 자격증, 대외활동 등 다른 방면으로 치열한 준비를 진행해 온 직원들이었기에, 향후 지원자분들 역시 인턴 경험이 없더라도 본인의 다른 경험과 역량을 꼼꼼하게 다듬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1		IB 직무를 준비할 때 금융 관련 자격증이나 영어 역량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실제 채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느꼈던 역량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A		금융 관련 자격증의 경우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객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제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격증 준비 시 공부했던 내용만큼은 직접적으로 업무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기에, 긍정적인 평가요소로 작용합니다. 영어 역량의 경우 해외 일을 주선하는 부서나 팀도 다수 있다 보니, 갖추고 있다면 큰 무기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직무들의 경우 보통 자유로운 회화가 가능한 수준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학과 내 팀프로젝트 경험, 금융업 관련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참가 이력 등의 경우 역시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증명하는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신한투자증권

No	구분	질문
12	A	실제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서 면접관들에게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느낀 경험이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IT 개발자, 마케팅 등 직접적으로 주식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무의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지원자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비금융권 IT 개발 직무가 아닌 금융권 IT 개발 직무를 선택한 명확한 동기가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현업에 투입되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시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없었던 신입사원 대비해서 더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는 모습을 봐 왔기 때문입니다.
13		자기소개서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이 지원자는 면접에서 만나보고 싶다'고 느끼게 되는 지원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A
		자소서/서류전형 본인만의 경험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부분이 서류전형의 당락을 결정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수천명의 자기소개를 읽다 보면 같은 경험에서도 배우고 느낀 점이 다른 지원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작성된 자기소개서는 확연히 눈에 띄기에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나의 구체적인 경험과 배움"을 기반으로 한 내용을 작성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	A	PB 직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경험이나 역량은 무엇인가요?
		PB 직무의 경우 입사 후 실제로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스펙 이외에도 주식시장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영업에 대한 적극성을 증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업무 관련 경험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5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며, 자기소개서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당사 및 신한금융그룹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신한 WAY] 가 당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배우고 성장하되, 그 과정에서 바른 길과 선택을 추구하며, 팀원들의 다른 의견에도 경청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진솔하게 기재해주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		PB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주로 나오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A	PB 직무의 경우 주식/채권/금융상품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직무이기에, 실제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된 질문들도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내용을 실제 본인의 투자에도 적용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7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지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답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작성해 놓은 내용에 대해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원자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해당 경험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실제로 무슨 일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끝나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18	A	신입으로 입사할 경우 이전 경력이나 군 복무 기간 등이 급여나 호봉 산정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군 복무기간의 경우 급여 및 호봉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전 경력의 경우 금융업 관련 경력에 한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19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은행이나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현직자 입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장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증권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다는 점이 은행 및 다른 금융권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장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IPO 업무,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 등 직접 시장에 발행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독자적으로 헷지 트레이딩하는 업무, 기업분석 보고서를 공표하는 리서치 업무 등 증권사만의 고유한 업무들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자금흐름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증권사의 매력입니다. :)
1		현재 은행 취업을 준비하다가 신한투자증권 IB(M&A)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입으로 IB 직무에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은행·IBK캐피탈·시중은행 등에서 기업금융이나 IB 관련 경험을 쌓은 후 신한투자증권의 IB(M&A), IPO-ECM 등의 직무로 이직하는 경로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입행 후 어떤 업무나 경험을 쌓는 것이 향후 증권사 IB로의 이직에 가장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A	충분히 현실적이고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IB 관련 업무는 꼭 증권사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 IB 직무는 물론이고, 회계법인/세무법인, 컨설팅firm, 비금융 전략기획 직무 등 다양한 방향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업에 있었느냐가 아닌, "내가 수행한 업무가 증권사 IB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기에, 말씀하신 직무경험에 도전함에 있어 부담감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특정 기업 대상 질문 (신한투자증권) 모의투자 대회나 주식 관련 자격증 등 직접적인 금융-투자 경험이 부족한 경우, 신한투자증권 지원동기와 직무에 대한 관심을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가요?
		A
		모의투자 대회나 주식 관련 자격증 등 금융-투자 경험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경험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경험들이 금융업에 대한 관심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은 맞기에, 해당 경험이 없다면 당사 및 타사 MTS를 이용해보면서 사용성을 비교해보는 경험이나, 직접 은행과 증권사의 지점을 방문해보고 느낀 차이점을 정리해보는 경험처럼 업에 대한 이해도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고, 지원 직무와 연결했는지 궁금합니다.
		A
		(1) 당사의 핵심가치와 내 지원 직무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경험들을 먼저 추려내고, (2) 해당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함에 있어서도 내가 수행한 업무 및 이를 통해서 변화된 구체적인 수치 상의 변화를 기재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원직무와 경험을 연결할 때는 정량적인 스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걸 넘어서, 이 경험이 왜 내게 중요한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이 지원직무 수행에 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신한투자증권

No	구분	질문
1	(자유 질문) 직무/부서 상세	금융 업무시스템이 아닌 일반 개발·인프라·보안 등 IT 직무에서도 신입에게 금융 도메인 지식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요구한다면 이를 자격증(예: 투자자산운용사), 프로젝트 등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채용 시 금융 도메인 중심 IT와 일반 IT를 별도로 선발하는지, IT 직군으로 통합 선발 후 배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금융IT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시다면 좋은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만, IT직군의 경우 기본적인 코딩 테스트를 거치고 있고 입사 시 처음부터 새로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열정과 준비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바이오 대학원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바이오 기술의 실무적 이해와 기업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IB 직무 지원 시 차별화된 강점으로 다양한 바이오 기술을 익히고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어필해도 괜찮을까요?
A		어필에 있어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나, IB 직무 부서 중 바이오 관련 밀한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보다 범용성 있는 기업 분석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이와 별개로 바이오/헬스케어 섹터를 담당하는 리서치본부 기업분석부 애널리스트 직무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홀세일 직무에 있어 강조해야 할 스펙 및 역량이 궁금합니다.
4		홀세일 직무는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기 때문에, 적극성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량적 요소로는 다른 직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해외 법인을 상대하는 직군의 경우는 어학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A		신입PB는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접에서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5		당사의 경우, PB직군은 초기 1년간은 OJT (교육 중심) 를 받게 됩니다. 도제식으로 선배들에게 영업을 배우는 기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영업을 어떻게 할거냐 라는 질문의 요지는, PB라는 직무가 어떤 직무이고, 무엇을 하는 직무인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A		S&T 부분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신입 공채로 취업하는 비율과 리서치 같은 곳에서 넘어오는 비율, 취업하게 된다면 주로 어떤 부서에 배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		당사 S&T그룹은 그 안에서도 전문직무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운용/세일즈 혹은 주식/채권/대체자산/파생 등 각 분야의 성격과 이해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해당 분야 지원을 희망하실 경우 단순히 S&T보다는 그 안의 세부 직무 중 어떤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를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당사의 경우 신입사원 및 경력직 채용 등 다양한 형태로 S&T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A		IB 대체투자/PF 직무를 희망 중이며 자격증, 학회, 공모전, 사무보조 알바 등 모두 부동산 및 대체투자에 맞춰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 한 운용사의 일경험에 참여하며 전통자산을 다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본래 대체투자 프로젝트를 희망했었고 처음엔 불합했었으나, 운영사 측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경험해보는 게 어떻냐고 제의를 주셔서 우선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업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자는 취지로 수락하고 참여했었습니다.
A		혹시 해당 경험이 저의 대체투자에 대한 진정성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 계속 대체투자 분야(IB PF 포함)를 준비중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가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8		또한, 일반적으로 IB의 희망하는 세부 직군이 있다면라도 처음부터 원하는 부서로 배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지와 만약 사실이라면 IB의 한가지 부서만을 목표로 한 것처럼 어필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업금융 전반을 준비한 것처럼 어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9		대체투자/인프라/전통 PF자산 등 모두 자산군은 다르더라도 투자 로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유관 경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 배치는 지원자의 희망사항도 충분히 고려하나 회사의 사정 및 판단에 따라 다른 분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지원 스펙트럼을 넓히기 보다는 본인의 희망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다른 지원자와의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IT부서에서 신입이 입사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로 입사하는 경우가 업무 자체의 적응속도가 느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내망에 대한 이해, 개발 과정 자체에서의 실수와 어려움은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성장과정입니다! 다만 증권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0 인 상태에서 정량적인 스펙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해당 직원들은 현업부서와의 개발요건 협의 등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입사 전 반드시 금융권 관련 실질적인 경험을 조금이라도 쌓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신한투자증권

No	구분	질문
8	(자유 질문) 인재상/스펙	PB직무 지원 시 어학점수가 1M일 때(조건달성), 서류 평가에 관련해, 어학 부분에서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어학점수로 소위 말하는 엑셀컷이 있나요?
A		당사에서는 모든 정량/정성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엑셀컷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9		PB직무 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 투운사 외 금융자격증 및 경력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자기소개서와 면접만으로 합격 가능할까요?
A		PB직무의 경우 자격사항에 대한 정량적인 스펙준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료되었다면, 본인의 영업현장 근무 경험을 쌓고, 기업을 분석해서 실제로 투자해보는 경험을 기록하고,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무 방식을 인터뷰해보는 등 실질적인 면접준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니 경험에 대한 누적을 우선하시면 좋습니다!
10		제작년 금융공동채용박람회에서 IB 채용 관련 현직자분께 학사 이상(학점은행제 포함)이면 지원 가능하고, 투운사-CFA Level 1 정도 외 정량적인 요소는 크게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현재도 실제 채용에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권사 ECM/IPO 직접 경력에 없는 경우 신한은행 등 은행의 기업금융·여신 경력(카드사 포함)이나 금융공공기관·기금 경력을 쌓은 후 ECM/IPO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30대 중후반 타 업계 경력자의 나이가 실질적인 제약이 되는지, 증권사 재직 중 개인적으로 대학원(MBA 등)을 병행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IB직무는 지원자분들의 준비도가 매우 높은 분야 중 하나라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정량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크게 보지 않는다고 보기는 다소 매우 우수하다고 보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 답변 드렸듯이, 30대 중후반이실 경우 기본적으로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나이를 감안해서라도 뽐을 만큼의 업무능력이 있으시다면 경력직으로의 이직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		PB 직무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보험사 지점에서 보험영업 인턴 하는 것이 스펙에 있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많은 편이라, 증권사 인턴/공채만 지원할지, 타 금융권 인턴이라도 일단 경험해 보는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A		보험영업 인턴이라고 말씀하신 업무가, 보험사 영업관리 직무를 말씀하신다면, 영업사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이기에 증권사 PB직무와 정확하게 합치되는 직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현장에서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을 간접경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비금융권 인턴보다 충분히 유용한 경험이라고 판단됩니다!
12		디지털 관련 분야의 경우 (데이터분석 등) 금융 자격증이 없어도 합격이 가능할까요? 디지털 자격증 혹은 프로젝트, 인턴 경험은 없으나 금융 자격증의 부재가 우려되며, 인턴 또한 금융업계 인턴이 아니라 걱정스럽습니다.
A		정해진 필수 자격사항이 없기에 금융자격증이 없어도 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으면서 나름 가성비있게 금융권에 대한 관심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자격증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을 내어서 취득하시는 것을 현직자로서 추천드리며, 반드시 금융업의 인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3		증권사 IB, DCM, 리서치 인턴에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uscpa 자격증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베네핏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		IB 특히 DCM의 경우 기업 재무분석 역량을 갖추었다면 좋은 어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		금융학회 활동을 1년 동안 했지만, (리서치 4회) 정성적으로 얻은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당 활동을 보완해서 자소서에서 작성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해서 꼭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이루어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했거나, 큰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등으로 진솔하게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S&T 직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트레이딩 직무의 경우, 문/이과, 성별 그리고 졸업 시기 및 나이가 인턴, 자격증, 금융 동아리 등 유관 경험과 직무 이해도 및 관심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꼭 트레이딩 직무가 아니더라도 성별 및 나이는 어떤 것에도 평가요소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며, 그 안에 인턴/자격증/학회 경험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16		증권사 마케팅은 어떤 지원자들을 주로 선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권 활동이나 서포터즈 경험이 없는데 최근 증권사 경영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증권업에의 관심도를 어필해야 설득이 될까요?
A		증권업에 대한 관심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역시 금융권 활동과 서포터즈 경험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당사와 삼성증권 채용담당자 분들이 답변했던 것과 같이 증권업에 대한 관심도는 금융관련 자격증 준비, 투자 경험, MTS 이용 경험 등을 통해서 간접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권사 "마케팅" 직무이기에 금융권에 대한 관심도 증명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역량" 그 자체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에 해당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17		PF 직무를 희망하는데, PF직무 인턴 말고 다른 직무에서 인턴 경험이 있으면 무의미할까요? 또 PF직무에서 일하기위해 어느정도의 스펙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부분의 IB직무와 마찬가지로 PF직무의 경우 부동산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IB 지원자분들의 정량적인 준비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PF 관련 인턴(꼭 증권사가 아니더라도, 신탁사/자산운용사/여전사 등) 경험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8		IB 직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관인턴 3회, CFA lv1 정도의 스펙을 쌓아뒀는데, 금융학회 경험도 필요할까요? 학회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궁금합니다. 공채 기준 학회가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A		학회/자격증/인턴경험 등을 점수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이 없으시다고 해서 꼭 채워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본인의 관심도와 준비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학회 등 요소를 정량화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크게 반영되어있지는 않으나 '입사지원자' 기준으로는 반 이상은 학회 경험을 어필해주는 것 같습니다.
19		혹시 백오피스 사무보조의 파견직 같은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경험해보시길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파견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배우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하면서 그냥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걸 넘어서, 내가 이 업무를 왜 하고 있고, 그 업무가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며 업무에 임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온라인 코칭챗 질문지_신한투자증권

No	구분	질문
20	(자유 질문)	블라인드 전형이면,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당사에서 일한 것 또한 숨겨야 하나요?
A	자기소개서/서류전형	당사의 모든 채용은 블라인드 전형이 아니기에, 이전에 당사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부담없이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또한 당사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아니더라도, 모든 경험(유관경력, 대외활동, 공모전, 동아리 활동 등) 역시 자유롭게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	(자유 질문)	PB를 준비하며 대형 의류 매장과 백화점 브랜드에서 1대1 고객 응대 경험에서의 제 영업방식을 영업 역량으로 말씀드렸는데, 금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르바이트 경험도 PB 면접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면접	또한 이런 경험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궁금합니다. PB직무의 경우 대면으로 고객을 상담하고 투자 방향성을 제안해야 하는 업무이기에, 금융권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합니다. 오히려 PB직무는 금융권에서 고객을 대면하지 않는 업무의 인턴경험보다, 비금융권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고 설득한 경험"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으니,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있어서도 무리하게 금융권과 연관성을 찾는 대답보다는 "영업 그 자체에 대한 경험과 적극성"을 어필하는 답변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사전 질문)	IB 직무는 해당 지원자가 기본적 소양을 갖췄다고 보는 자격증이나 공부(회계 세법 재무)등에 있어서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시나요? 신용분석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그리고 양사 모두 어학자격증을 오찍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토스ih150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		IB직무의 경우 자격증으로는 CFA 취득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신용분석사도 많이들 취득하시고 계십니다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A		어학 자격증은 당사의 경우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실제 활용가능여부에 초점을 맞춰 검증하고 있어서 토익스피킹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하반기에 it직무가 아닌 디지털 직무 공채로 뽑는지 궁금합니다!
2	특정 기업 대상 질문	
A	(신한투자증권)	아직 신입공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모집직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비정량적 평가요소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서류, 면접 등 어떠한 전형에서 지원자의 외모, 가족관계 등은 수집하지 않으며 평가요소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접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하는 것이고, 증권업은 특히나 사람을 대하는 업무가 많은 곳으로 예쁘고 잘생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호감을 주는 인상은 당연히 긍정적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외적인 요소보다는 지원자의 준비 정도와 역량을 최우선으로 검증 선발하고있습니다.